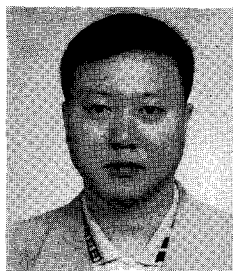


상생의 양록



문종환/본회 홍보국장

을 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상생(相生)의 정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했다. 자기 당과 반하는 당을 죽여야만 살아 남을수 있다는 전투구도에서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협력구도로 바뀌는 조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다 4.13 총선을 앞두고 지금은 「상생의 정치」라는 말은 썩 들어가고 다시 파괴적이고 전투구도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잠깐이나마 정치권의 현안이 상생인가 싶어 잔뜩 기대를 걸어 봤는데 결국 물거품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농협이 새천년을 맞아 「상생운동」을 본격 표방하고 나서 기대를 걸게 한다. 농협이 주창하는 상생운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자연과의 상생」, 생산과 소비가 둘일 수 없다는 「소비자와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그것이다.

상생은 「더불어 삶」을 의미

본래 상생(相生)은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 상태」를 일컫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의 준말이다. 음양오행에서는 상극(相剋)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으며 나무·흙·물·불의 어울림 같이 서로 밀접히 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상생은 「더불어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1차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양록업 또한 독불장군식 구태에서 벗어나 새천년에는 상생의 업종으로 승화시키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내 양록업 활착을 위해서는 농협이 펼치는 「상생운동」을 우리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먼저 양록업도 「자연과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다행히 양록업은 자연을 파괴하며 수익을 획득하는 정복자적 업종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소·돼지·닭 처럼 축산분뇨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될 업종인 것이다. 환경친화적 성격이 강한 양록업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자연을 벗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종이 바로 사슴이다. 그래서 사슴을 차세대 축종으로 스스로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배고픔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이다. 인간의 건강에 기여하는 녹용과, 양(量)보다는 질(質)의 먹거리인 사슴고기를 생산하는 양록업이야말로 이상적인 축산업이 아닐 수 없다.

새천년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은 점차

그 생명력을 잃을 것이며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따라서 사슴을 기르는 양록농가는 환경친화적 업종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의지를 불태워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지금당장 빗물에 씻겨 떠내려갈 오물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슴장 청소부터 말끔히 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양록업으로 탈바꿈시켜 놓을때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상생」하는 사슴 기르기가 아니면 도태될 수 있다.

이제부터 소비자를 무시한 생산행위는 존립할 수 없다. 생산과 소비가 둘일수 없다는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돼 안전한 사슴산물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소득지지를 통한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상생은 수입개방으로 흔들리는 생산활동과 사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상호 공존의 틀을 확고히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생산자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생산물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생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 생산자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공생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의 상생은 생산자의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안전하고 고품질인 사슴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인 사슴농가는 나와 내가족이 먹는 사슴산물을 생산한다는 프로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보약이자 치료제인 녹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적당히 벗짚이나 먹여 사슴을 키우겠다는 위험천만한 양록인은 전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성의하게 벗짚이나 먹여 생산한 녹용을 어느 정신나간 소비자가 구매할 것이며 생산자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는가.

양록인 상생의식 싹터야

마지막으로 「조직과의 상생」만이 양록업을

굳건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사슴사육으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양록인은 그들의 권익보장에 앞장서는 조직에 참여하여 상생하려는 의식이 싹터야 한다. 만약 양록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인 협회가 존재치 않는다면 농가의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현재 양록축협, 영농조합, 유통연합회, 기타 친목단체 등에 소속된 양록인이라 할지라도 비회원은 일단 국내 유일의 권익대변 단체(조직)인 한국양록협회 깃발아래 뭉쳐야 한다. 어느누가 제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부정하더라도 전 양록인의 구심체이자 대표 조직은 협회일 수 밖에 없다. 협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책임은 양록인에게 있지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그 참모가 싫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없듯이 협회에 소속된 몇몇사람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협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사슴이 있고 양록인이 존재하는 한 협회의 존립은 무한할 것이며, 다만 소속된 사람만이 유한할 뿐이다. 조직과의 상생은 양록인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이끄는 인사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협회 참여자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리더자들은 「회원의 협회」로 발전시키려는 능동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전 양록인을 회원으로 묶을 수 있는 사슴사육 면허증 같은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는한 양록인의 협회 참여는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결국 양록인의 깨어 있는 의식, 조직과 상생하려는 협력만이 한국양록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에는 자연과의 상생, 소비자와의 상생, 조직과의 상생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양록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때다.*